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조 학 래
<사회복지학 · 조교수>
hlcho@kbtus.ac.kr

I. 문제제기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물질주의 및 향락·퇴폐풍조가 만연하면서 우리나라 전래의 건전한 가치관이 무너지고,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가족 및 인간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세대간의 갈등이 증폭됨으로써 청소년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청소년문제 중에서 우리가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이다. 1만여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조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4.4%가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1998년도 환각물질흡입사범 중에서 16~19세가 7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연령층이 환각물질흡입의 주류계층임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19세 이하 환각물질흡입사범은 2,666명으로 전체사범 3,911명의 68.2%를 차지하고 있어 환각물질이 10대 청소년들에게 만

연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문화관광부, 1999).

이러한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청소년비행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학교생활에서도 무단결석이나 성적저하 등이 나타나고 폭행, 절도, 기물파괴와 기타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김성이 외, 1996)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정규적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약물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각종 범죄를 범할 가능성과 또래집단에게 약물남용 행위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환각상태나 극도의 정서적 불안상태에서 여러 심각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청소년의 약물남용으로 인한 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생산적인 노동력을 잃는 동시에 약물남용 청소년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우리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청소년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약물남용문제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처방안 마련이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연구는 전국규모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에 집중되어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현상의 파악과 대안마련에 큰 도움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특정 연령층이나 대상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파악과 분석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약물남용의 위험집단인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들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물남용의 위험집단인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사용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약물남용의 정도와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중점을 두고,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설명하고 예측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기능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관찰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약물남용 상태에 있는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법 마련에 도움이 되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사용실태를 알아본다. 둘째,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본다. 셋째, 보호관찰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II. 청소년 약물남용의 영향 요인

1. 약물남용의 개념정의

일반적으로 약물남용에서 의미하는 약물이란 행동이나 정신상태를 바꾸는 모든 화합물 혹은 향정신성 약물을 지칭한다. 약물의 과다한 사용을 의미하는 전문용어들은 약물중독(drug addiction), 약물남용(drug abuse), 약물의존(drug dependence), 그리고 물질남용(substance abuse) 등이 있다. 특히 의학적인 용도가 아닌 임의의 약물사용을 말하는 약물남용은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향정신성 약물의 비의학적 사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약물남용은 감정, 인식, 행동에 인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향정신성 약물(마약류), 즉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비의학적·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주왕기, 1996). 특히 청소년 약물남용이란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때에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약물사용으로 인해서 사회적, 법적 또는 학교와 관련된 문제들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병리적 형태를 형성하거나 또는 심리적 의존 즉, 약물사용을 지속하려는 욕망을 갖고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약물남용의 개념은 청소년기에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용하기 쉬운 술, 담배(경약물)와 본드·부탄가스(중약물)와 같은 약물을 원래 의도된 목적과는 다른 목적이거나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2. 약물남용의 원인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즉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들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행동양태나 성격유형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약물남용행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환경 즉, 가정, 또래집단, 학교, 사회환경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적 요인

가족은 청소년들이 도덕적 사회규범을 내면화하고 적합한 행위유형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불화가 심한 가정, 사망·이혼·유기에 의한 한부모가정, 그리고 음주와 약물중독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된 가정은 가족의 사회기능과 통제력이 약화되어 청소년들을 비행으로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요인들이 청소년의 약물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의 약물사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지속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정도는 자녀들의 약물사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Forster, 1984; 김혜숙 외, 1994).

이와 함께 가족의 상호작용유형도 청소년의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부모와의 정서적 거리감과 사랑이 부족하다는 인식 등은 청

소년으로 하여금 약물을 시작하고 계속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Norem-Hebeisen et al., 1984). 즉 15-16세 청소년들에게 부모와의 관계형성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약물 사용자들은 비사용자들에 비해 자신의 가족은 거리감이 있고, 관심이 없으며, 대화가 부족하고, 신뢰받지 못하며, 처벌적이라고 인지하였다(Stoker & Swadi, 1990). 이 외에도 청소년 약물사용과 연관된 상호작용유형으로는 부모의 지도감독 부족, 비일관적인 양육태도, 부정적인 대화유형, 칭찬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부모로부터 낮은 수준의 감독을 받는 청소년들이 약물사용을 일찍 시작할(Chilcoat & Kane, 1998) 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심도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약물사용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차경수 외, 1994).

이런 요인들 외에도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청소년이 부모와 유리되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과 용돈이 충분히 주어지는 것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손경애, 1992). 또한 형제들의 약물사용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형이나 언니가 동생들에게 모델링의 대상이 되거나 중요한 준거집단이 되어 그들의 약물사용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Gfroercer, 1987).

2) 학교요인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교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고 사회적, 정서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을 전수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생활의 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행동과 기대 및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Sprinthall & Collins, 1995).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대한 청소년의 심리적 태도는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의 실패의 두려움, 낮은 학업동기와 학업성취는 약물사용의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Millis & Noyes, 1984).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높은 스트레스와 좌

절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낮은 학업성적은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예측해주는 요인이며, 청소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성취압력으로부터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약물을 남용하기도 한다(손경애, 1992). 이런 연구결과로 볼 때, 청소년들이 학문적 성취과정에서 학업과 직업에 대한 열망수준은 높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열망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느낄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비행이나 약물남용을 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다.

3) 또래친구의 요인

청소년기에 또래집단에서의 소속감과 친밀감은 청소년에게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청소년들은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친밀감을 형성해 나간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친구관계를 통해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조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친구들이 약물사용과 같은 어떤 일련의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면, 그들에게는 규범적인 행동이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Kandel, 1985).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속감과 친밀감을 얻고, 이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약물남용을 하게 되며, 이때 약물은 소속감과 친밀감을 얻기 위한 수단적 도구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또래친구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약물을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던 청소년들을 약물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Robinson et al., 1987). 이것은 또래친구가 약물사용을 지지하거나 약물사용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약물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특히 초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또래친구는 성행동, 흡연, 음주와 같은 위험행동의 중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혼자서 약물을 시작하거나 사용하기보다는 또래친구들의 영향이나

압력을 받아 약물사용을 하거나 비행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ok et al., 1983; Brown et al., 1986).

4) 사회적 요인

약물남용은 빈곤, 사회해체, 그리고 절망감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빈곤과 약물사용이 연관되는 현상은 경제적 하류층에서 보이는 높은 수준의 불신감, 회의주의, 반항 등과 관련이 있다(Winick, 1965). 또한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들 수 있는데, 스트레스는 외부사건 즉, 학교시험, 이사, 부모의 이혼, 친척이나 친구의 죽음과 같은 생활사건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숙한 대처기제나 심리적 곤경(우울증, 주의력 결핍장애, 인격장애 등과 같은 정신병리)과 같은 개인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나 심리적 곤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불안하고 소외감이 강해 음주나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riedman et al., 1987; Mitic et al., 1987). 청소년들이 이런 위험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지루하고 따분한 생활과 성적의 중압감과 같은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함으로써 무엇인가 새롭고 모험적이며 자신에게 긴장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와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본추출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자청소년 219명이다. 보호관찰청소년들 중에서 남학생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된 것은 일반적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비행이나 범죄에 쉽게 노출되며, 약물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은 학교현장에서 실시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학업을 중퇴한 청소년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조사는 2000년 7월 10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조사방법은 설문지의 응답요령과 주의할 점을 교육받은 면접원(4명)이 보호관찰소의 상담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에 직접 수거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배부된 설문지 250부 중에서 227부를 회수하였고, 자료로 이용하기에 부족한 8부를 제외한 219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조사도구

본 조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기존의 약물사용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후,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 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약물남용의 측정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약물남용에 대한 단순경험과 남용경험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단순경험이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흡연과 음주의 경험이 있는지와, 본드·부탄가스와 같은 약물을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흡입한 경험이 있는가의 여부를 말한다. 그리고 남용경험은 현재에도 매일 한차례 이상 흡연을 하는가와 일주일에 1회 이상 음주를 계속해서 하는지, 그리고 본드와 부탄가스와 같은 약물을 계속해서 흡입, 사용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약물의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담

배·술(경약물)과 본드·부탄가스(중약물)를 구분하여 실태분석에 이용하였다. 약물남용의 실태는 단순경험, 최초의 경험시기, 현재경험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2) 생활환경 변인의 측정

(1) 가족변인의 측정

가족변인으로는 가정분위기, 부모와의 대화정도, 부모의 감독(monitring), 부모의 체벌정도, 그리고 가족의 약물환경 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가정분위기는 가족의 화목정도와 부부간의 갈등정도를 합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즉 가족의 화목정도를 묻는 문항은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돕는다’로,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정도는 ‘우리 부모님은 자주 싸우신다’의 두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부모와의 대화정도는 ‘아버지에게 나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와 ‘어머니에게 나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의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있는지 알고 계신다’와 ‘집에 늦게 들어갈 때는 항상 사전에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는다’의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체벌정도는 ‘야단치거나 벌을 주실 때 아버지(어머니)는 때리시기도 하신다’의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의 약물환경에는 부모의 음주정도, 부모의 흡연정도, 그리고 형제 중 약물사용자 유무 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부모의 음주정도는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술을 자주 드신다’로 물어보았고, 부모의 흡연정도는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담배를 많이 피우신다’로 질문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약물사용정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흡연과 음주를 합한 것이며, 형제 중에서 약물사용자가 있는지도 물어보았다.

(2) 학교변인의 측정

학교변인으로는 교사와의 관계, 학교성적, 학업에 대한 태도 등 세 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교사와의 관계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

를 의논할만한 선생님이 있다'와 '선생님은 나의 생각과 의견에 관심을 가져주신다'의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성적은 '당신의 지난 학기 학교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로 물어보았다. 학업에 대한 태도는 '수업시간의 내용들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와 '나는 예습을 꼭 해서 간다'의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친구변인의 측정

친구변인은 친구와의 애착관계, 비행친구수, 약물 사용을 권유한 친구수, 그리고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수 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친구와의 애착관계는 '친구들은 내 생각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준다'와 '지금의 친구들과 계속해서 친구관계를 맺고 싶다'의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비행친구수는 '비행이나 문제행동 때문에 학교에서 정학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경찰로부터 처벌을 받은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약물 사용을 권유한 친구수는 '친한 친구 중에서 담배, 술, 본드나 부탄가스 등을 사용하라고 권유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의 문항으로 알아보았다.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수는 '친한 친구 중에서 담배, 술, 본드나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의 문항으로 각각 질문하였다.

3) 약물환경 변인의 측정

(1) 상황변인의 측정

청소년의 약물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그들이 처한 특정 상황 또는 주변의 상황들이 약물사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약물돌출행동, 약물에 대한 구입용이성, 스트레스 정도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였다. 먼저 약물돌출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친한 친구들이 모여서 약물을 사용한다고 해도 나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의 문항으로 물어보았다. 또한 주변에서 약물을 얼마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술·담배의 구입용이성과 본드나 부탄가스의 구입

용이성의 정도를 각각 질문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정도는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간섭,’ ‘학교성적문제,’ ‘동성친구와의 갈등,’ ‘진로문제,’ ‘용모·외모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성문제,’ ‘성격문제,’ ‘교사와의 갈등,’ 그리고 ‘학교내·외의 폭력문제’ 등의 10개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약물에 대한 태도변인 측정

청소년의 약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술, 담배 그리고 본드·부탄가스 등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술·담배에 대한 태도는 ‘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가끔씩 나는 술을 마시고 싶다,’ ‘가끔씩 나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학교에서 처벌하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다’의 네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본드·가스에 대한 태도는 ‘본드·가스는 호기심으로 한 두 번쯤 해 볼 수도 있다’와 ‘본드·가스를 흡입하는 것은 개인문제이므로 학교에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의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약물에 대한 지식정도 측정

약물에 대한 지식정도는 ‘본드·가스를 흡입하면 뇌 기능에 손상이 온다,’ ‘알코올중독은 일종의 질병이다,’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약물의 양을 점차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술은 중독성이 강한 습관성 약물이다,’ ‘청소년기에 담배를 피우면 신체적 성장이 느려진다,’ ‘어떤 약물이건 사용의 정도가 지나치면 부작용이 오거나 중독에 이르게 된다’의 여섯 문항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약물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조사 완료된 설문지는 부호화(coding) 및 입력오류 검토(error checking)

작업을 거친 뒤 SPSS/PC(Ver. 8.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활용한 통계 분석방법은 약물에 대한 지식정도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차분석, t-test분석, 단순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 등의 기법을 각각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의 응답자들인 보호관찰청소년들이 지닌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학교별 분포는 고등학생이 70.3%(154명), 중학생이 29.7%(65명)로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이 표집되었다. 학교성적은 학생들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자신의 학업성적을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2%, '중'은 33.3%, '하'는 63.5%로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의 학교성적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을 물어본 결과, 양친이 계신 경우가 76.7%로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결손가정도 2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학생의 결손가정(33.8%)이 고등학생(18.8%)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5.768$, $df=1$, $p<.05$). 부의 교육정도를 물어본 결과 국졸이하가 11.0%, 중졸이 22.4%, 고졸이 52.1%, 그리고 대졸이상이 14.6%로 각각 나타났다. 모의 교육정도는 국졸이하가 17.8%, 중졸이 26.0%, 고졸이 48.9%, 그리고 대졸이상이 7.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전체평균이 16.8세였고, 중학생은 15.4세, 고등학생은 17.3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은 이와 같은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구분		보호관찰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학업성적	상	-	7(4.5)	7(3.2)
	중	24(36.9)	49(31.8)	73(33.3)
	하	41(63.1)	98(63.6)	139(63.5)
가족유형	완전가정	43(66.2)	125(81.2)	65(29.7)
	결손가정	22(33.8)	29(18.8)	154(70.3)
부의 교육정도	국졸 이하	11(16.9)	13(8.4)	24(11.0)
	중졸	18(27.7)	31(20.1)	49(22.4)
	고졸	31(47.7)	83(53.9)	114(52.1)
	대졸 이상	5(7.7)	27(17.5)	32(14.6)
모의 교육정도	국졸 이하	12(18.5)	27(17.5)	39(17.8)
	중졸	20(30.8)	37(24.0)	57(26.0)
	고졸	30(46.2)	77(50.0)	107(48.9)
	대졸 이상	3(4.6)	13(8.4)	16(7.3)
연령평균(표준편차)		15.4(1.3)	17.3(1.1)	16.8(1.4)
계		65(100.0)	154(100.0)	219(100.0)

2.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기에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용하기 쉬운 음주, 흡연(경약물) 및 본드·부탄가스(중약물)를 중심으로 단순경험, 최초 사용시기,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용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단순사용경험

보호관찰청소년들 중에서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조사대상자의 10명 중 9명 이상이 넘는 201명(91.8%)으로 나타났고, 보호관찰중학생의 87.7%와 고등학생의 93.5%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관찰청소년들 중에서 지금까지 한번이

라도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조사대상자의 10명 중 9명이 넘는 206명(94.1%)이나 되었고, 보호관찰중학생의 90.8%와 고등학생의 95.5%가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단순사용경험

N(%)

단순사용경험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음주	있다	57(87.7)	144(93.5)	201(91.8)
	없다	8(12.3)	10(6.5)	18(8.2)
흡연	있다	59(90.8)	147(95.5)	206(94.1)
	없다	6(9.2)	7(4.5)	13(5.9)
본드· 부탄가스	있다	30(46.2)	53(34.4)	83(37.9)
	없다	35(53.8)	101(65.6)	136(62.1)
계		65(100.0)	154(100.0)	219(100.0)

한편, 조사대상자 중에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본드나 부탄가스를 환각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조사대상자의 37.9%(83명)로 나타나 약물의 심각한 유해성에 비해 단순사용경험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통계학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중학생(46.2%)이 고등학생(34.4%)보다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 단순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최초 사용시기

약물의 최초 사용시기를 임의적으로 초등학교(13세 이전), 중학교(14-16세), 그리고 고등학교시기(17세 이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음주의 최초 사용시기로 초등학교가 9.0%, 중학교가 71.6%, 그리고 고등학교가 19.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를 시작하는 최초의 시기를 학교별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7.269$, $df=2$, $p<.05$). 즉, 중학생은 초등학교가 14.0%,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86.0%로 최초 음주 평균연령은 14.6세로 나타난 반

면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6.9%, 중학교가 69.4%,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23.6%로 최초 음주 평균연령은 15.5세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보호관찰청소년들의 최초 음주시기는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음주를 일찍 시작할수록 독성화(intoxication)가 쉽게 일어나고 다른 약물(담배, 본드, 부탄가스 등)의 사용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이후의 음주행동을 변화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James et al., 1996)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표 3> 최초 사용시기 N(%)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최초 음주시기	13세 이전	8(14.0)	10(6.9)	18(9.0)
	14-16세	44(77.2)	100(69.4)	144(71.6)
	17세 이후	5(8.8)	34(23.6)	39(19.4)
	계	57(100.0)	144(100.0)	219(100.0)
최초 흡연시기	13세 이전	15(25.4)	10(6.9)	25(12.1)
	14-16세	43(72.9)	108(73.5)	151(73.3)
	17세 이후	1(1.7)	29(20.1)	30(14.6)
	계	59(100.0)	147(100.0)	206(100.0)
최초 흡입시기	13세 이전	2(6.7)	2(3.8)	4(4.8)
	14-16세	23(76.7)	23(43.4)	46(55.4)
	17세 이후	5(16.7)	28(52.8)	33(39.8)
	계	30(100.0)	53(100.0)	83(100.0)

흡연의 경우, 최초 흡연시기로는 13세 이전이 12.1%, 14-16세가 73.3%, 그리고 17세 이후가 14.6%로 각각 나타났다. 학교별에 따른 최초의 흡연시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최초 흡연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chi^2=21.432$, $df=2$, $p<.001$). 즉 중학생의 경우 25.4%가 초등학교 때 담배를 피워보았고,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74.6%였고, 최초 흡연 평균연령은 14.2세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6.9%, 중학생은 73.5%, 고등학교 진학 후는 20.1%이었고, 최초 흡연 평균연령은 15.5세였다. 이런 결과로 볼 때, 보

호관찰청소년들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생보다 초등학교 때 흡연을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시기부터 체계적인 약물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드·부탄가스를 최초로 흡입한 시기로는 중학교가 흡입경험자의 과반수가 넘는 55.4%이었고, 이어서 고등학교 39.8%, 초등학교 4.8%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본드·부탄가스의 최초 흡입시기는 중학교 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시기가 본드나 부탄가스에 대해 가장 취약한 시기로 볼 수 있다. 학교별로 보면, 중학생의 최초 흡입시기 평균연령은 15.2세로 대부분의 중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한 후(76.7%)에 처음으로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평균 흡입연령이 16.3세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52.8%)와 중학교 때(43.4%) 처음으로 본드·부탄가스를 흡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보호관찰청소년들의 본드·부탄가스의 최초 흡입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현재 사용여부

단순히 한번 경험한 것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에도 약물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지를 물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음주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68.9%에 해당하는 151명이 계속해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단순경험자(201명)의 75.1%가 계속해서 음주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술이 가지고 있는 강한 중독적 특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음주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 달에 3회 정도 음주한 경우를 실험적 수준으로, 주 1회 이상을 습관적 수준으로 구분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34.7%는 실험적 수준으로, 34.2%는 정기적으로 음주를 하는 습관적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중학생(49.2%)보다 고등학생(77.3%)의 음주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 1회 이상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고등학생의 비율(42.9%)도 중학생(13.8%)보다 3배 이상 높았다($\chi^2=22.820$, $df=2$, $p<.001$). 이런 결과로 볼 때,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술은 하나의 기호품으로 생각할 정도로 널리 퍼져있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중독에 도달할 가능성이 많은 습관적 음주자도 조사대상자의 3명중 1명 정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음주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표 4> 현재 약물사용여부

N(%)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현재 음주빈도	주 1회 이상	9(13.8)	66(42.9)	18(9.0)
	월 3회 정도	23(35.4)	53(34.4)	144(71.6)
	마시지 않음	33(50.8)	35(22.7)	39(19.4)
	계	65(100.0)	154(100.0)	219(100.0)
현재 흡연빈도	거의 매일	43(66.2)	132(85.7)	175(79.9)
	주 1-2회	6(9.2)	4(2.6)	10(4.6)
	피우지 않음	16(24.6)	18(11.7)	34(15.5)
	계	65(100.0)	154(100.0)	219(100.0)
현재 흡입빈도	주 1회 이상	1(1.5)	4(2.6)	5(2.3)
	월 1-2회	4(6.2)	6(3.9)	10(4.6)
	흡입 않음	60(92.3)	144(93.5)	204(93.2)
	계	65(100.0)	154(100.0)	219(100.0)

다음으로 흡연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84.5%인 185명은 계속해서 흡연을 하였고, 보호관찰중학생의 66.2%와 고등학생의 85.7%는 거의 매일 담배를 피울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단순 경험자(206명)의 89.8%가 현재에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 담배가 가지고 있는 강한 중독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고등학생(88.3%)이 중학생(75.4%)보다 계속해서 흡연을 하는 경우와 흡연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chi^2=11.512$, $df=2$, $p<.01$)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흡연은 거의 보편화, 일상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에도 계속해서 환각의 목적으로 본드나 부탄가스를 사용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6.9%에 해당하는 15명만 본드나 부탄가스를 계속해서 흡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단순경험자(83명) 가운데 18.0%가 계속해서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드나 부탄가스의 중독성(addiction)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조사대상자의 신분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불법적인 약물인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것 자체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소응답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3.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약물남용과의 단순상관관계

보호관찰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간의 단순상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들 변인 중 형제중 약물사용유무는 유목변수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상관관계분석이 불가능하여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표 5>에서와 같이, 전체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약물남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 변인들로는 체벌정도, 형제중 약물사용유무, 학교성적, 비행친구수, 약물사용 권유 친구수, 약물사용 친구수, 술·담배 구입용이성, 중약물 구입용이성, 약물돌출행동, 술·담배 태도, 중약물 태도, 약물지식 정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체벌경험이 많을수록, 형제 중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형제가 있을수록,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친한 친구 중에서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친한 친구 중에서 약물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친한 친구 중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주위에서 술이나 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주위에서 본드나 부탄가스와 같은 중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친구들의 약물사용 권유나 유혹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할수록, 술이나 담배의 사용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본드나 부탄가스의 사용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그리고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정도가 결여될수록 약물남용이 심해짐을 의미한다.

<표 5> 약물남용과 변인들간의 단순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r	r	r
가정분위기	-.027	-.042	-.028
부모와의 대화정도	.026	-.087	.014
부모의 감독정도	-.059	-.088	-.087
부모의 약물사용정도	-.009	-.043	.041
체벌정도	.132*	.106	.076
형제중 약물사용유무 ^a	.150*	.162	.110
교사와의 관계	.007	-.016	.026
학교성적	-.187***	-.268*	-.201*
공부에 대한 태도	-.113	-.203	-.057
친구에 대한 애착	.021	.043	.044
비행친구 수	.165*	.416***	.057
약물사용 권유 친구수	.332***	.355**	.214**
약물사용 친구수	.373***	.540***	.273***
술·담배 구입용이성	.519***	.434***	.500***
중약물 구입용이성	.141*	-.165	.261**
약물돌출행동	-.176**	-.392**	-.099
스트레스 정도	.011	.218*	.157*
술·담배 태도	.529***	.732***	.373***
중약물 태도	.235***	.406***	.174*
약물지식 정도	-.147*	-.053	.190*

주: * p<.05 ** p<.01 ***p<.001

a 가변수(Dummy variable)화하여 사용하였음. 형제중 약물사용, 있음=1, 없음=0.

그러나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약물남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 변인들에서 약간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중학생의 경우, 약물남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변인들로는 학교성적, 비행친구수, 약물사용 권유 친구수, 약물사용 친구수,

술·담배 구입용이성, 약물돌출행동, 스트레스 정도, 술·담배 태도, 중약물 태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호관찰중학생 중에서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친한 친구 중에서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친한 친구 중에서 약물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친한 친구 중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주위에서 술이나 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친구들의 약물사용 권유나 유혹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술이나 담배의 사용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그리고 중약물의 사용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약물남용이 심해짐을 의미한다.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성적, 약물사용 권유 친구수, 약물사용 친구수, 술·담배 구입용이성, 중약물 구입용이성, 스트레스 정도, 술·담배 태도, 중약물 태도, 약물지식정도의 변인 등이 나타났다. 이것은 보호관찰고등학생 중에서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친한 친구 중에서 약물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친한 친구 중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주위에서 술이나 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주위에서 본드나 부탄가스와 같은 중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술이나 담배의 사용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중약물의 사용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그리고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결여될수록 약물남용이 심해짐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중학생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비행친구수와 약물돌출행동은 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중약물 구입용이성과 약물지식 정도 등은 고등학생의 약물남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중학생의 약물남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 예측요인 분석

앞에서 단순상관분석을 통해 여러 변인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여러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각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변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설명하고 예측 가능케 하는 변인들을 알아보고, 이들 예측변인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stepwise regression)분석¹으로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 예측모델을 산출해 보았다.

보호관찰청소년의 흡연, 음주, 중약물(본드·부탄가스) 등의 남용정도를 합하여 약물남용이라는 종속변수를 구성한 후에,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단계적 방식으로 투입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와 같이, 전체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술·담배에 대한 태도($\beta=.520$), 술·담배 구입용이성($\beta=.357$), 비행친구수($\beta=.226$) 등으로 나타났다($F=40.845$, $p<.001$). 이들 변인들은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 변량을 42.0%나 설명하며, 그 중에서 술·담배에 대한 태도 변인이 27.1%의 변량을 설명하면서 보호관찰청소년 약물남용의 설명과 예측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술·담배 구입용이성이 10.2%, 비행친구수 변인이 4.7% 순으로 보호관찰청소년 약물남용의 설명과 예측에 기여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의 술·담배 사용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이고, 주위에서 술·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비행친구가 많은 보호관찰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보호관찰청소년에 비해 약물남용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¹ 회귀분석에 사용할 변인들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와 분산팽창계수를 살펴본 결과, 독립변인들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산팽창계수도 10 이상인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보여진다.

<표 6> 전체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Beta	t	p	R ²	R ² 증가
술·담배에 대한 태도	.520	7.978	.000	.271	.271
술·담배 구입용이성	.357	5.255	.000	.373	.102
비행친구수	.226	3.710	.000	.420	.047

주: stepwise regression 분석과정에서 PIN은 .05, POUT는 .10으로 설정.

그러나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을 발달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약물남용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변인들은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중학생의 약물남용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표 7>에서와 같이 술·담배에 대한 태도($\beta=.732$), 비행친구수($\beta=.296$), 약물사용 권유 친구수($\beta=.204$), 약물돌출행동($\beta=-.179$) 등으로 나타났다($F=27.560$, $p<.001$). 이것은 보호관찰중학생 중에서 술·담배의 사용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이고, 친한 친구 중에서 비행친구가 많고, 친한 친구 중에서 약물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친구가 많고, 친구들의 약물사용 권유나 유혹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중학생일수록 약물남용이 더 심함을 의미한다.

<표 7> 보호관찰중학생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Beta	t	p	R ²	R ² 증가
술·담배에 대한 태도	.732	7.828	.000	.536	.536
비행친구수	.296	3.343	.001	.618	.082
약물사용 권유 친구수	.204	2.444	.018	.658	.040
약물돌출행동	-.179	-2.182	.033	.687	.029

주: stepwise regression 분석과정에서 PIN은 .05, POUT는 .10으로 설정.

전체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술·담배의 사용에 대한 태도가 약물남용의 변량을 53.6% 설명해 주면서 약물남용 예측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고, 비행친구수 8.2%, 약물사용 권유 친구수 4.0%, 약물 돌출행동 2.9% 순으로 보호관찰중학생의 약물남용에 대한 설명과 예측에 기여하였다. 이들 변인들은 68.7%의 약물남용 변량을 설명하고 있어 <표 6>의 전체 보호관찰청소년 약물남용 예측모델의 42.0% 보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훨씬 잘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순상관분석에서 보호관찰중학생의 약물남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학교성적, 약물사용 친구수, 술·담배 구입용이성, 스트레스 정도, 중약물에 대한 태도 등의 변인들은 다른 변인들과 함께 분석했을 때는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관찰고등학생의 약물남용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변인은 <표 8>과 같이 술·담배 구입용이성($\beta=.500$), 비행친구수($\beta=.208$), 술·담배에 대한 태도($\beta=.175$) 등으로 나타났다($F=17.628$, $p<.001$). 이것은 보호관찰고등학생 중에서 주위에서 술·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친한 친구 중에서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그리고 술·담배의 사용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보다 약물남용이 더 심함을 의미한다. 이들 변인들 중에서 술·담배 구입용이성이 약물남용의 변량을 25.0% 설명하면서 약물남용 예측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고, 이어서 비행친구의 수가 4.1%, 술·담배에 대한 태도가 2.5% 순으로 약물남용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은 보호관찰고등학생의 약물남용 변량을 31.6% 설명해주고 있다.

<표 8> 보호관찰고등학생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Beta	t	p	R ²	R ² 증가
술·담배 구입용이성	.500	6.234	.000	.250	.250
비행친구수	.208	2.579	.011	.291	.041
술·담배에 대한 태도	.175	2.043	.043	.316	.025

주: stepwise regression 분석과정에서 PIN은 .05, POUT는 .10으로 설정.

하지만 단순상관분석에서 보호관찰고등학생의 약물남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학교성적, 약물사용 권유 친구수, 약물사용 친구수, 중약물 구입용이성, 스트레스 정도, 중약물에 대한 태도, 약물지식 정도 등의 변인들은 다른 변인들과 함께 분석했을 때 보호관찰고등학생의 약물남용에는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변인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전체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약물남용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변인들이 약간 다를 뿐만 아니라 약물남용의 설명력과 예측력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예측모델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전체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42.0%이었고, 중학생 모델의 경우는 68.7%로 상당히 향상되었다가 고등학생 모델의 경우는 31.6%로 감소하였다.

한편, 보호관찰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약물남용 예측변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술·담배에 대한 태도와 비행친구 수 등의 변인들은 두 집단에서 모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 친한 친구 중에서 약물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친구가 많거나 이들 친구들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중학생일수록 약물남용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런 변인들이 약물남용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변인들로 기여하지 못했고, 오히려 주위에서 술·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의 약물남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어떤 친구들을 사귀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고와 행동유형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청소년비행은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Simons et al., 1994)를 지지하고 있다. 대체로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집단과의 교류는 일반적인 집단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문제해결 양식과는 다른 규범을 학습하기 때문에, 약물남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

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간략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술과 담배는 약물이라는 의식 없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초 사용시기도 점차 저연령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단순음주경험자는 조사대상자의 91.8%나 되었고, 최초 음주시기로는 중학교 시기가 71.6%로 나타나 최초의 음주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중학교 시기가 음주에 대해 절대적으로 취약한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1주일에 1회 이상 습관적 음주를 하는 보호관찰청소년은 조사대상자의 34.2%에 해당하는 7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순흡연경험자는 조사대상자의 94.1%나 되었고, 최초 흡연시기로는 중학교 시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가 흡연과 음주에 대해 가장 취약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현재에도 계속해서 거의 매일 담배를 피우는 보호관찰청소년은 조사대상자의 79.9%에 해당하는 17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에서 구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저렴한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 경험이 있는 보호관찰청소년은 조사대상자의 37.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드나 부탄가스를 최초로 흡입한 시기는 중학교 시기가 55.4%로 나타나 이 시기가 흡연과 음주와 같은 경약물뿐만 아니라 본드나 부탄가스를 주로 흡입하는 취약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환각의 목적으로 본드나 부탄가스를 계속 흡입하는 보호관찰청소년은 조사대상자의 6.9%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보호관찰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변인들로는 술·담배에 대한 태도, 술·담배 구입용이성, 비행친구수 등의

변인들로 밝혀졌다. 특히 발달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약물남용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변인들은 약간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호관찰중학생의 경우는 술·담배에 대한 태도, 비행친구수, 약물사용 권유친구수, 약물돌출행동 등의 변인이 영향을 주는 반면에, 보호관찰고등학생의 경우는 술·담배 구입용이성, 비행친구수, 술·담배에 대한 태도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보호관찰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을 잘 예언해 줄 수 있는 공통적 위험요인으로 보호관찰청소년 약물남용의 고위험군(high risk group)을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표 9> 보호관찰청소년 약물남용의 고위험군(high risk group)

-
1. 청소년의 흡연이나 음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자기 주위에서 술과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3. 친한 친구 중에서 비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친구가 많을 경우
 4. 친한 친구 중에서 약물을 함께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친구가 많을 경우
 5. 친한 친구들의 약물사용 권유나 압력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경우
-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관찰청소년들의 약물남용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청소년을 포함하여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 예방교육이 보다 조기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방법과 프로그램도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중학교 시절에 주로 약물을 시작하는 것으로 제시하고(조학래, 2001) 있지만,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에는 술과 담배와 같은 경약물을 초등학교 시기부터 사용하여 중학교 시기에는 거의 보편화·습관화되는 현상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약물의 사용은 약물사용의 과정을 볼 때, 중약물로 전이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약물사

용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초등학교 시기부터 약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약물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중심으로 가정과 학교현장에서 약물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중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들과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확보할 방안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집단, 현재 실험적으로 사용하는 집단,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집단 그리고 약물남용이나 의존에 빠진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적합한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보호관찰을 포함한 사회봉사명령을 받는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인력과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형식적인 관리에 그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관, 학교의 양호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약물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친구관계를 맺게 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친구요인이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또래집단(주로 일탈집단)의 접촉이나 압력, 또래집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을 중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친구를 포함해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방법, 또래집단의 압력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또래집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약물이 외에 긍정적 대안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보호법을 보다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직도 보호

관찰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위 환경에서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경약물뿐만 아니라 본드나 부탄가스와 같은 중약물을 마음만 먹는다면 손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현실에서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보호법이 시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청소년보호법이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보호관찰청소년들을 포함하여 학생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뿐만 아니라 제반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사회사업의 제도적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즉 학교 내에서는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 등 학생청소년의 전체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학생청소년과 그 문제를 다루며 학생청소년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개선하는 학교사회사업의 실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으로서 <표 9>에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관찰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이 연구조사처럼 횡단조사가 아닌 종단조사를 실시하여야만 보호관찰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실태와 원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금명자 외. 『약물남용 청소년상담프로그램 I』.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5.
- 김성이 외.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와 예방대책 연구』. 문화체육부, 1996.
- 김용석.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 음주와의 관계.” 『한국사회 복지학』, 제39권. 103-27, 1999.
- 김준호 · 박정선.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1999.
- 손경애.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대책』. 현대사회연구소, 1992.
- 조학래.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청소년복지 연구』, 제3권 1호. 177-192, 2001.
- 주왕기. 『본드 · 가스이야기』. 강원대학교출판부, 1996.
- 차경수 외.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와 대책 연구』. 문화체육부, 1994.
- Brook, J. S., Whiteman, M., & Gordon, A. S. “Stages of drug use in adolescence : Personality, peer, and family correl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19 (2), 269-77, 1983.
- Brown, B., Clasen, D., & Eicher, S. “Perception of peer pres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 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Psychology*, 22, 521-30, 1986.
- Chilcoat, H. D. & Anthony, J. C. “Impact of Parent Monitoring on Initiation of Drug Use through Late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 (1), 91-99, 1996.

- Forster, B. "Upper middle class adolescent drug use: Pattern and factors." *Advances in Alcohol and Substance Abuse*, 4 (2), 27-36, 1984.
- Friedman, A. S., Utada, A. T., Glickman, N. W., & Morrissey, M. R. "Psychopathology as an antecedent to, and as a consequence of, substance use in adolescence." *Journal of Drug Education*, 17 (3), 233-44, 1987.
- Gfroercer, J. "Correlation between drug use by teenagers and drug use by older family members."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13 (1, 2), 95-108, 1987.
- James, W. H., D. D. Moore, & M. M. Gregersen. "Early Prevention of Alcohol and Other Drug Use Among Adolescents." *J. Drug Education*. 26 (2), 131-42, 1996.
- Kandel, D. On processes of peer influences in adolescent drug us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B. Stimmel (Ed.), *Alcohol and substance abuse in adolescence*. NY: Haworth, 1985.
- Millis, C. J., & Noyes, H. L. "Patterns and correlates of initial and subsequent drug us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2, 231-43, 1984.
- Mitic, W. R., McGuire, D. P., & Neumann, B. "Adolescent problem drinking and perceived stress." *Journal of Alcohol and Drug Education*, 33 (1), 45-54, 1987.
- Norem-Hebeisen, A., Johnson, D. W., Anderson, D., & Johnson, R. "Predictors and concomitants of changes in drug use pattern among teenager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4, 43-50, 1984.
- Robinson, T., Killen, J. D., Taylor, C. B., & Bryson, S. W. "Perspective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A defined population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58, 2072-76, 1987.

- Simons, R. L., Conger, R. D., & Lorenz, F. "Two routes to delinquency: Differences between early and late starters in the impact of parenting and deviant peers." *Criminology*, 32, 247-276, 1994.
- NSprinthall, N. A., & Collins, W. A. *Adolescent Psychology; A developmental view* (3rd ed.). McGraw-Hill, Inc, 1995.
- Stoker, A., & Swadi, H.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in drug abusing adolescent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5 (3), 293-97, 1990.
- Winick, C. Epidemiology of Narcotics Use. In D. Wilner and G. Kassenbaum (Eds.), *Narcotics*. NY : McGraw-Hill, 1965.